

고수온 피해 양식장 염지하수 허용 ‘재점화’

서부지역 양식업계 “여름 한철 공공관정 개발” 요구
 위성곤 지사 “업계 피해 예방 차원 가능성 검토할 것”
 지하수 전문가들 “추가 허용 시 해수 침투 우려 높아”

바다 수온이 치솟아도 바닷물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제주 서부지역 양식장들이 폐사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수온이 상대적으로 낮은 염지하수를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위성곤 제주지사는 제도 개선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찬반 논란이 재점화할 것으로 보인다.

전임 도정은 서부지역에서 염지하수를 추가 개발하면 자원 고갈과 해수 침투 우려가 높이라며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4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올 여름 고수온에 따른 폐사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한 도내 양식장은 이날 기준 총 10곳으로, 피해 규모는 5만2000여마리에 이른다. 피해 양식장은 모두 서귀포시 대정읍에서 넘치를 키운다는 공통점이 있다.

피해가 한 쪽에 쏠린 이유는 이들 양식장이 고수온에 상대적으로 더 취약해서다. 다른 지역 양식장은 수온이 연중 17℃ 내외로 일정

한 염지하수를 끌어다 쓸 수 있어 여름에도 폐사 사례가 없는 편이지만, 서부지역은 지난 2008년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이 지정돼 그 이후부터 추가 염지하수 개발이 사실상 막혀 있다. 수온이 오르면 물속에 녹아 있는 산소량이 급격히 감소해 양식 생물이 폐사한다.

도내 양식장 370여곳 중 3분의 1인 100여곳이 서귀포시 대정읍과 제주시 한경면 등 서부지역에 몰려 있다.

서부지역이 지하수특별관리구역으로 십수년째 묶인 이유는 지하수 부존량이 가장 적고, 해수 침투 피해도 일어나기 때문이다. 2022년 수립된 제주도 통합물관리계획에 따르면 4개 권역별 지하수 연간 함양량은 북부 491억9600만㎥, 남부 593억2200만㎥, 동부 541억7000만㎥, 서부 235억2500만㎥이다.

또 제주특별법은 해수 침투 우려가 높거나 지하수 사용이 과다한 곳을 지하수특별관리구역으로 지

정해 개발과 이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부지역 양식업계는 산소 농도를 억지로 끌어올리는 액화산소 투입만으로는 고수온 피해를 예방할 수 없다며 지난 1일 위성곤 지사에 거 여름철에 한해 염지하수를 제한적으로 공급 받을 수 있게 공공관정을 개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위 지사는 “서부지역 양식장의 반복되는 고수온 피해를 줄이기 위해 염지하수 활용 문제를 지하수 보전과 양식어업인의 생존을 함께 고려해 관계 부서와 제도 개선 가능성을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지하수 연구자들은 염지하수 취수를 추가 허용할 경우 부작용이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제주지하수연구센터 김민철 박사는 “동부 지층 구조는 담수(지하수)층과 염지하수층 경계가 뚜렷하지만 서부는 지층을 수직적으로 볼 때 특정 지점에선 염지하수층이 나타났다가 특정 지점에선 담수층이 나타나는 등 혼재되다보니 염지하수에 담수가 섞여 있는 비율도 50%에 이른다”며 “따라서 염지하수 10t을 취수하는 것은 담수 5t을 취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를 과도하게

사용하면 압력 차이로 해수면이 상승해 담수의 빈 공간을 해수가 차지하는 해수 침투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 또 “특히 양식장 관정 1개 당 하루 사용량은 1만t 수준으로 다른 공공 관정에 비해 사용량이 10배에 이른다”고 했다. 양식장 운영 특성상 지하수 과다 사용-해수 침투로 이어지는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제주도는 서부지역 양식장의 염지하수 활용 가능성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한다며 아직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했다. 또 관계자는 “서부지역 피해가 반복되니 염지하수 활용 방안을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는 뜻이지,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된 것은 없다”며 “지하수 보존 문제도 있기 때문에 물정책과 등 여러 관계 부서들의 의견도 들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오영훈 전 지사는 지난해 11월 도정질문에서 서부지역 양식장들이 염지하수를 쓸 수 있게 지하수특별관리구역에서 해제해야 한다는 양용만 전 제주도의원 요구에 “서부 유역 염지하수 취수와 해수 침투의 상관관계가 확인됐다”며 사실상 반대했다. 이상민기자



제17회 세계자연유산 거문오름 트레킹 행사가 오는 13일부터 17일까지 열린다. 한라일보 DB

13~17일 제17회 세계자연유산 거문오름 트레킹 태극길·용암길 2개 코스로 진행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3일부터 17일까지 거문오름 일대에서 제17회 세계자연유산 거문오름 트레킹 행사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평소 출입이 제한되는 거문오름 용암길은 매년 트레킹 행사 기간에만 개방돼 사전 예약 없이 누구나 무료로 걸을 수 있다.

올해는 탐방객 편의를 위해 시작 시간을 기존 오전 9시부터 오전 8시로 1시간 앞당겼다. 입장은 오후 1시에 마감되며, 출발 전 탐방안내소에서 안전 안내를 받고 출입증을 발급받아야 입장할 수 있다.

트레킹은 태극길과 용암길 두 개 코스로 운영된다.

태극길은 분화구 내부와 정상부 능선을 따라 걷는 코스로, 정상코스(2.1km·1시간)와 분화구코스(5.0km·2시간30분), 능선코스(6.7km·3시간30분) 가운데 고를 수 있다. 원하는 탐방객에게는 세계자

연유산 해설사가 동행해 거문오름의 생성 과정과 지질·생태적 가치를 설명한다.

행사 기간에만 열리는 용암길(6km)은 거문오름에서 분출한 용암이 흘러간 길을 따라 걷는 약 3시간30분 코스다. 해설사 동행 탐방을 원하면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30분 간격으로 함께 걸을 수 있다.

용암길 종점에서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까지는 무료 셔틀버스가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30분 간격으로 운행한다.

개막식은 14일 오전 9시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에서 열린다. 거문오름 풍물단의 길놀이 공연을 시작으로 다양한 축하공연이 이어진다. 행사 기간에는 체험 프로그램 및 주민 참여 프로그램과 기념품을 주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오소범기자 sobom@ihalla.com



만개한 성읍민속마을 황화코스모스 4일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민속마을 공한지에 황화코스모스가 만개해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강혁만기자

▶바로잡습니다-본보는 8월 4일자 1면 ‘행정시장 공모제 무의미… 지명적 필요’ 제하의 기사에서 역대 모든 제주지사들이 정치적인 이유로 러닝메이트 대신 공모를 통해 행정시장을 인선했다고 보도했지만,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후 치러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에서 당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김태환 전 제주지사가 제주시장에 김영훈 씨를, 서귀포시장에 이영두 씨를 각각 예고하는 러닝메이트 제도를 활용해 선거를 치른 것으로 확인돼 이를 바로 잡습니다. 독자 여러분께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모두가 주인공! 함께 성장하는 제주교육

Everyone Leads, Growing Together in Jeju Education

삶의 힘을 기르는 책임교육

모두를 품는 포용교육

평화와 생태의 민주시민교육

미래를 여는 제주다움교육

현장을 지원하는 청렴행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